

글 : Phil Dukarsky

# 유럽 유로 의원들 동물 복지 규정 강화를 촉구해



지난주에 있었던 유럽의회에서는 EU 동물 복지 Action Plan으로서 복지 현황에 대한 조사 빈도 증가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6-10호는 사료내 항생제 감소에 있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로 의원들은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다.

사육부터 도축·가공과정 까지 높은 수준의 동물 복지는 생산물의 안전과 품질을 향상하여 유럽의 모든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복지 요구수준을 관련 EU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전하였다.

스웨덴의 Marit Paulsen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서 유럽 연합 집행 기관의 2006~2010년의 복지 정책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다른 무엇보다도 의회는 과밀형(공장형) 케이지 사육 금지, 거위와 오리 이동방 법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EU 기준에 부합하는 수입 기준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법 시행을 위하여 EU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유로 의원들은 EU로 수입 되는 고기 등 육생산품에 대하여 EU 복지 기준에 부합하여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유로 의원들은 EU 집행부에 “동물 복지의 일반 정의, 연관 비용과 기본 조건 정립”을 위한 일반 동물 복지법을 제정할 것이다.

이와 함께 EU 전역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위하여 “동물 복지의 기본 수준”도 정립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 ◎항생제 규제현황

의회는 2006년 EU가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항생제 사용 반대를 촉구한 이래로 성장 촉진용 항생제 사용 감소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유로 의회는 위원회에 앞으로 동물 의약품 및 항생제 내성 등에 관한 연구 조사를 착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 ◎동물 복지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또한 동물 복지를 위한 유럽 네트워크 형성을 지지하며, 체인 음식점 교육 지원과 신기술 검사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